

광산구 어린이 교통공원 앞 교차로·임방울대로·광신대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상 구간 3곳 지하화

10일 공청회 열어 시민 의견 수렴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자칫 단절될 뻔했던 도심구간을 다시 잇기로 했다. 2호선 2단계 지상구간 3곳을 모두 지하화하기로 한 것인데, 시민들은 교통혼잡과 사고 우려 그리고 지상화에 따른 소음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반기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시 산하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 하반기 착공예정인 2호선 2단계 지상구간을 지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41.8km 구간이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1곳을 갖는 사업이다. 1단계 구간은 2019년 9월 착공해 2023년 말 완공 예정이며, 2단계와 3단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 각각 2024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본부는 2단계 구간 중 광산구 소재 어린이 교통공원 앞 교차로와 임방울대로, 광신대교 등 3곳에 대해선 전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지상구간으로 설계했다. 이들 구간을 지하화하면 최소 1500여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선 이들 구간의 지하화를 놓고 심각한 교통체증 발생과 지상화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도시철도 운행 과정의 소음, 도심 단절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건설본부도 여러 검토 끝에 지상구간 조성시 심각한 교통

체증 발생 등에 따른 시민 손실 비용이 추가 비용(지하화)보다 더 클 것으로 결론 내고, 최종 지하화를 결정했다.

건설본부는 어린이 교통공원 앞 교차로 1.2km 구간에서 교통흐름이나 소음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침단대교 500m구간만 지상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지하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공원 구간 지하화는 최근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출퇴근 시간대 등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건설본부는 또 임방울대로(1.2km)와 광신대교(1.2km) 다리 위 중간 지점에 철로를 놓는 계획을 철회하고, 모두 다리 밑 지하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구 유촌동 차량기지는 6만9000㎡에서 2000㎡가 줄어든 6만7000㎡로 들어선다.

지하화에 따라 사업비도 2조579억원에서 1535억원이 늘어난 2조2114억원으로 추산된다. 추가 사업비는 정부와 광주시가 6대 4 비율로 부담한다. 본부는 이미 기재부와 수차례 접촉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앞으로 시민공청회와 광주시의회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대경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광주 교통여건이 당초 계획안을 만들 때와 많이 달라져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화할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하화로 변경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구간 중 남구 백운광장에서 조선대 방향 대남로 주변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식당·카페·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광주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우려도

시장 “자율·책임 방역 의무 강화”

광주시가 6월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책임 방역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는 시설을 차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만 너무 앞서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7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자율·책임 방역 의무를 강화한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테디카페는 7일부터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해당 시설에는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이번에 영업 제한이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도 해제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수칙은 유지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방심을 보이면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교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 시설을 위해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집단면역을 앞당기는 일로, 예방접종 순서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서는 최근 7일간 확진자가 59명 발생해 하루 평균 8.4명을 기록했다.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까지 화순에서 다방을 매개로 감염자가 8명까지 불어났다. 확진자에 화순 능주교 학생 2명이 포함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목포 달리도에서도 영농 과정에서 주민 11명이 감염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문 대통령, 성추행 피해 女 부서관 추모

엄정한 수사·조치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부서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물론 향후 엄정한 수사·조치가 나설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서관의 부모를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부서관의 부모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을 방문, 추념사를 통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고검장 조종태·광주지검장 박찬호

법무부, 검찰 고위급 인사

조종태(54·사법연수원 25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박찬호(55·26기) 제주시검장이 광주지검장으로 오게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의 최고 관심사였던 이성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신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정수(52·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대검



조종태 광주고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바 있다.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광주지검장으로 오는 박찬호(55·26기·광양) 제주시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순천고와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The New S-Class

Trust in the Best.

완전히 새로워진 S-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성 서비스센터 (04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동대로 1041(화정동)  
\* 48인승승고차 광주 전시장 (042) 945-0007 | 광주광역시 서구 양곡로 516(수환동)  
\*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여흥대로 603(남동 20소문동)  
\* 우문 서비스센터 (062)941-009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환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400 4M (배기량:2925,공칭출력2510,차종9인), 복합연비:11.4(도심9.9, 고속도로:14.0)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70  
\* S580 4M (배기량:3982,공칭출력2720,차종9인), 복합연비:7.4(도심6.8, 고속도로:9.9) 5등급, 복합CO2 배출량: 277  
\* 본 차량에 표지판에 차량 번호가 도록 되어,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등에 따라 감속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여러가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